

국내외 ESG 사례를 통해 본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임형철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연구원

정무섭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Strategies to Expand SMEs ESG Management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ESG Cases

Hyung-Chul Lim^a, Moo-sup Jung^b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ong-a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ong-a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1, Revised 20 December 2021, Accepted 23 December 2021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s aim to stimulate ESG management of SMEs in Korea with SWOT analysis. Presently, ESG is also affecting a company's supply chain and sales. We tried to make the complementary point of Korea SME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We divide foreign cases into three countries, and in Korea, also divide into three groups of government, major companies, SMEs to conduct SWOT analysis.

Findings - We confirmed that ESG activities were delayed in Korea compared to overseas, but the government and major companies were responding quickly. However, SMEs are complaining of difficulties in ESG activities due to cost issues and limited information. Nevertheless, some SMEs companies show the possibility by carrying out ESG activities based on their own strength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e suggested the need for SMEs' ESG management. The SMEs are inevitably vulnerable to ESG management compared to other groups. Therefore, We suggested the direction of SMEs ESG management expansion, that are R&D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activit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universities(E), social program to improve working places(S), and expansion of governance that guarantees autonomy(G).

Keywords: ESG, SMEs, Supply Chain, SWOT Analysis c

JEL Classifications: L10, L20, M10

I. Introduction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패권이슈를 비롯한 코로나 19와 같이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는 영역으로 ESG가 떠오르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

* 이 논문은 동아대 후지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 First Author, E-mail: zzerizang@dau.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msjung@dau.ac.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배구조(Governance)를 나타내는 말로 기존의 재무적인 요소로만 평가하던 기업의 가치를 아래의 <Table 1>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새로이 추가한 평가 방법이다.

Table 1. The Key Issues of ESG

Category	Key Themes	Key Issues		
Environment (E)	Climate Change	Carbon Footprint	Vulnerabilities from Climate Change Events	
	Natural Resources	Energy Efficiency	Sourcing of Raw Materials	
	Pollution and Waste	Toxic Emissions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Opportunities and Policy	Renewable Energy	Clean Technology	Green Building
Social (S)	Human Capital	Workplace Health, Safety	Development Opportunities	
	Product Responsibility	Product Safety, Quality	Access to Products	
	Relations	Community	Government	Civil Society
Governance (G)	Corporate Governance	Board Structure and Accountability	Accounting and Disclosure Practices	
	Corporate Behavior	Management of Corruption	Competitive Behavior	

Source: IMF(2019)

ESG에 대한 오늘날의 화제성을 이끈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래리 핑크를 꼽을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는 투자대상 기업들에게 ‘넷 제로(NET ZERO)’를 요구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사로는 작년부터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창한 SK의 최태원 회장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국내 경제계 인사를 만나면서 ESG 경영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한국에서 개최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으면서 ESG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ESG는 그 역할이 더욱 커져 국가도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EU가 있다. 이미 EU는 탄소중립국가와 같은 환경과 사회에 관해서 모범적인 길을 걸어왔다. EU는 올해부터 ESG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금융사의 투자활동을 제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들에게 ESG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또한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었다. 한국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필두로 2022년부터 1조 원 이상, 2024년부터 5,000억 원 이상,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밝혔다.¹⁾

ESG의 등장이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ESG의 등장 이전 기업들은 이미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기본 요건인 이윤 추구를 넘어선 기업의 사회적 의무 충족을 위한 활동이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소비자들은 팔시하지 않고 책임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들의 CRS 활동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ESG는 비단 활동에 끝나지 않고 활동의 성과를 기업의 가치와 연결해주며 CRS의 영역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오늘날 ESG의 등장은 예정된 수순임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ESG에 대한 관심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나라도 정부부터 기업에 걸친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늦은 시점에 ESG를 인식하여 아직까지 모든 기업이 ESG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작을수록 ESG와 관련한 준비를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를 위해 세계

1)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1), 「We will Promote Measures to Improve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to Reduce Corporate Burden and Strengthen Investor Protection, (Press Release January 14) Seoul,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fsc.go.kr/no010101/75176>

각국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의 ESG 사례를 분석하여 각 주체들이 ESG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ESG의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이 ESG 상황 하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Jung Moo-Kwon and Won Kang(2020)에서 저자는 ESG 성과는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Kim Bum-Seok and Jae-Hyung Min(2016)에서는 ESG 부분 성과와 재무비율의 관계를 통해 공급사슬 효율성을 분석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부분 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무비율로 총자산순이익률, 영업자산대총자산등이 도출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영업자산대 총자산은 공급사슬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현금화주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재무비율로 현금화 주기가 짧을수록 공급사슬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Oh Deok -Gyo(2012)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대기업을 포함한 지주회사나 금융업종에 속한 그룹보다 ESG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ESG 환경 아래 중소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힘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ESG 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기업가치와 공급사슬의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지금의 공급사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활성화된 ESG 경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주체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SWOT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ESG 환경,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해외 ESG 사례

1. 유럽

유럽은 ESG 활동 이전부터 탄소세와 같은 환경적 측면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한 연합이기도 하다. 때문에 ESG 활동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가장 체계적이고 빠른 수준의 대응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유럽은 연합차원에서의 적극적인 ESG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유럽은 현재 ESG 관련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21)에 따르면 EU는 ESG에 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 관련 정책으로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기업활동의 사회·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는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 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Due diligence)' 등이 있다.

유럽은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환경에서 사회 부분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독일의 알리안츠의 ESG 경영사례가 있다. 알리안츠는 1890년 2월 5일에 세워진 글로벌 기업이다. 알리안츠는 EU의 대표적 기업답게 2002년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웹페이지 개설 후 지속적인 보고서를 발간하며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알리안츠는 ESG 경영 중 환경 중 기후변화 완화, 지구온난화 해결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어 향후 5년간 탄소배출량을 29%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 2018년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책 수립하는 등 환경 부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²⁾ 이외에 사회(Social) 부분의 활동인 기업시민 프로그램(Corporate Citizenship Program)을 통해 미래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Governance) 부분에서는 2017년부터 세금 투명성 보고서(Tax Transparency Report) 발간,

2)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2021b), "Germany ESG Latest Trends", Available from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8227> (accessed September 2, 2021)

매출과 수입세금 등을 공개하는 등 환경 위주의 활동만이 아닌 사회(S)와 지배구조(G)부분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바이든 출범에 따라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청정에너지 투자(약 2조 달러) 등 환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Kotra(2021)에 따르면 미국노동부(DOL)는 ESG 투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민간 부문 은퇴 및 기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칙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 기조로도 ESG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중에서도 ESG를 통해 신규 사업기회로의 발판으로 삼은 기업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기업인 ExxonMobil은 세계적인 정유기업으로 대표적인 탄소배출 기업이다. ExxonMobil은 탄소와 관련한 환경 ESG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작년 12월 탄소 포집·저장 기술 및 바이오 연료 기술에 투자하는 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술 협력을 통한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는 자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환경파괴의 이미지 탈피를 모색하여 ESG 경영을 통한 새로운 발걸음에 나서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기업 사례로 애플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2030년까지 전 제조 공급망과 제품 주기에서 탄소 중립화를 달성하는 환경목표를 선언했다. 사라 찬들러 애플 친환경 및 공급망 혁신총괄 자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사내 사용 전기와 출장 및 임직원의 출퇴근 배출량을 포함하는 탄소발자국을 실시하고 있으며 44개국 캠퍼스, 애플스토어, 데이터센터에서는 100% 재생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애플은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공조하여 에너지 효율성, 탄소 저감량을 높여 제품 생산 전환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8백여만 톤 감축하였다. 애플의 궁극적인 목표로 순환공급사슬로서 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또는 재생가능한 소재화이다. 최근 출시된 맥북 에어는 재활용 비율이 40%이며 외장에는 100% 재생 알루미늄이 사용되었다고 전했다. 전 제품화에 대한 재생가능화는 환경부문에 있어서 기업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3. 중국

최근, 중국 정부도 ESG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Moon Ji-Young et al (2021)에 따르면 올해 3월 4일부터 11일간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2020년과 비교해서 새롭게 언급된 단어로 '녹색'(6회)과 '탄소'(7회)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인 '14.5 계획'의 일환으로 녹색경제를 언급하며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의 종합 방침 실행으로서 에너지 총사용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 관리 시스템 개선,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절약 강화, 에너지 사용권 거래시장 조성을 진행하는 한편, 탄소배출 관련 프로젝트 진행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지도의견 제시,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정산 및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에 대한 거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복지의 일환으로 고용의 질적 향상 추진과 인적자본 강화,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정비 등과 같은 근무환경의 개선과 함께 안전한 생산관리 규정을 집행하는 등 사회(S)와 지배구조(G)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ESG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Han Hee-Ra(2021)에 따르면 블룸버그가 뽑은 친환경 사업 기업인의 순자산에서 1위 일론머스크와 7위 프라트 인터스트리스의 안소니 프라트 회장과 9위에 이름을 올린 에너콘의 알로이스 보벤 회장을 제외한 15위까지의 나머지 사업가 모두가 중국 출신임을 보았을 때 그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2위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의 쟁위쑤 회장이며 CATL은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4.2%를 차지하며 세계 1위다. 3위는 태양광 제조사 롱이솔라(LONGi Solar) 리젠궈 회장, 4위는 중국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의 왕찬푸 회장, 5위는 리튬배터리 제조사 이브에너지의 류진청 회장, 6위는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Xpeng)의 허샤오펑 회장, 8위는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Nio)의 리빈 회장, 10위는 중국 응용소재업체인 항저우 퍼스트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린젠화 회장 등이 선정됐다. 11위부터 15위도 모두 중국 출신 기업인이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사례를 보면 중국의 허점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오는 2030년까지 전 공급망의 친환경 달성 및 탄소중립을 목표를 설정했다. 전 매장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개발에 25억 유로(약 3조3500억)를 투자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과 윤리적 원자재 조달을 위해 목재삼림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를 감독하고 있는데, 최근 이케아는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에 관련 문서 위조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 및 판매 중단을 단행하기도 하였다.³⁾

4. 시사점

각국의 정부 ESG 사례를 보았을 때, 유럽연합의 선제적이고 높은 수준의 관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SG와 관련하여 발 빠른 법제화 준비로 영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와 관련한 모든 공급사슬에 있어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선두에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출범에 따른 기조 변화로 ESG 노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중국의 경우도, 국가 회의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부분에 대한 강조를 함으로서 ESG에 대한 대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해외사례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ESG가 일부 선진국에 국한되지 않은 범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ESG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이에 대비하는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pple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 또한 이를 중요하게 인식함을 볼 수 있었으며, ExxonMobil의 경우를 통해 ESG활동이 하나의 전환점 구실을 하여 기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ESG 활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차 없이 가치사슬에서 배제될 수 있음 또한 확인했다. 이제 ESG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범세계적인 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ESG 활동은 기업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 of Each Country

Country	Characteristics	
Europe	Preparation for Legislation	ESG activities of companies across the entire spectrum
USA	Emphasis on ESG Due to Recent Regime Change	Seizing Opportunities for Companies through ESG Activities
China	Increased ESG-Related Mentions Compared to Last year	Risk from Supply Chain Problems, such as the IKEA Issue
Implication	The Two Sides of ESG Activities: Opportunities and Threats	

Source: Authors.

III. 국내 ESG사례

1. 정부

한국은 위에서 열거된 선진국보다는 다소 늦은 출발점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한국 정부는

3) Kim Woo-Kung (2021 April 28), "Europe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 If Korean Companies have ESG Competitiveness, They have and Advantage over China", *IMPACT ON*, Available from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cxno=1679>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ESG 경영에 관심이 있는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K-ESG 지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⁴⁾ 여기서는 국내의 ESG 평가 필요성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통합된 ESG 지표 준비를 통해 평가방식과 평가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적합한 ESG 평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2월 K-ESG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평가형태의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당 K-ESG 지표에서는 정보공시(5개), 환경(17개), 사회(22개), 지배구조(17개)를 포함한 총 61개의 문항을 기초로 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분야별 질문은 〈Table 3〉과 같이 제시되었다.

Table 3. K-ESG (Representatives Contents of K-ESG)

Division	Representatives Contents	Number of Questions
Information Disclosure	ESG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Period·Range	5
Environment (E)	Environmental Management Goals and Implement System	17
	Eco-friendly Certification	
	Greenhouse Gas Emission	
	Waste and Pollutant Emission	
Social (S)	Recycling Rate	22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Goal	
	Industrial Accident	
	Violation of Laws	
	Recruitment·Full-time	
Governance (G)	Industrial Safety	17
	Human Rights	
	Mutual Grow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oard Expertise·Composition	
Governance (G)	Stockholder Rights	17
	Moral Management	
	Audit Institutions	

Sour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1).

이는 기존 국내외 주요지표와 높은 수준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ESG 평가 대응능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정부는 2021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 부처차원에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각 부처별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7가지분야의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는 (1)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2)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강화, (3) 공공부문의 ESG 경영선도, (4) ESG 채권·펀드 활성화, (5) 시장 자율규율체계구축, (6)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7)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등이 있다⁵⁾.

한국정부는 국내 자체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모색하고

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1b), "Ministry on Industry Starts to Establish K-ESG Index in Earnest"(Press Release April 21), Sejong,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4036

5)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1), "The 44th Emergency Economy Centr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Meeting was held."(Press Release August 26), Sejong,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636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있는 것이 확인된다. 외교부에서는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에 참여하고 있으며, P4G는 녹색경제와 관련된 5대 중점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안건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 및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 하고자 하는 협력체이다.⁶⁾

2. 대기업

1) SK 하이닉스: 전사적 차원의 ESG 경영

한국정부뿐 아니라 대기업을 또한 ESG 이슈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표적 선도기업은 SK그룹으로 평가된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며 꾸준히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SK하이닉스의 Sustainability Report 2021(2021)에서는 ESG 경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사회 결정구조인 지속경영위원회에서 더 세부화한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NET ZERO와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구조를 구성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COVID-19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구성원 안전을 위한 비상 대응 이행)와 재난과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사업연속성계획(BCP)을 전 사업장에 걸쳐 수립하고 있다. 만약 기업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EO가 BCP를 선언을 함으로써 BCP 조직으로 전환하여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여 정상화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의 인증(ISO 22301)을 통해 자리를 잡으며 전사적 차원의 ESG 역량 강화를 이루었다.

하이닉스는 위와 같은 사내 ESG 생태계 구성과 함께 환경 관련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Green 2030’을 선언하며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Green 2030의 전략 중 하나로 반도체 공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자원의 관리를 통한 정량적인 목표 이행을 통해 환경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관리의 세부전략으로는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취수량 증가율 감소로 생산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취수량비율도 증가율이 증가하지만 이러한 증가율의 감소를 통해 수자원 절감을 노력 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취수량 증가율이 2018년 대비 12% 증가한 반면 2019년 대비 2020년 취수량은 6%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음으로 재이용량 확대이다. 취수량 증가와 함께 이미 들어온 취수에 대한 재이용 또한 중요한 수자원 절감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데 2020년 국내 사업장에서만 총 2,693만 톤의 물을 재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 충족으로 공전 전후 사용된 수자원을 방류를 함에 있어 방류 기준을 충족시키며 하천 생태계의 보존을 이끌어 가고 있다.

2) 삼성전자: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통한 ESG 경영

삼성전자는 2004년을 시작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일환으로 올해 A JOUR NEY TOWARDS A SUSTAINABLE FUTURE(2021)를 발간함으로써 ESG의 동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삼성전자의 주목할 만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 노력이 있다. 삼성전자는 공급망을 세분화하여 함께 성장하는 공급망, 책임 있는 공급망, 환경친화적인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공급망으로 구매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급망과의 유기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며, 매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기술, 품질, 대응력, 납기, 원가, 환경안전, 재무, 기업윤리 등의 항목을 중점으로 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공급망 경쟁력 유지와 취약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련 활동으로는 자체적인 행동규범을 작성하여 이를 협력회사가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선정한 8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평가 틀을 전 협력회사에 배포하여 이를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제 3자 검증을 통해 협력사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팔로우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환경 부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1998년부터 국내 최초 폐전자제품 종합 재활용

6) Ministry of Foreign Affairs(n. d),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P4G)”(Webpage), Available from https://www.mofa.go.kr/www/wpge/m_22235/contents.do (accessed July 21, 2021)

센터인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55개국에서 다양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모바일기기 전문 수리점인 ‘uBreakFix’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500여 개 지점에서 소비자 자체적으로 폐전자제품을 폐기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2018년 42만 톤의 폐전자제품 회수량이 2020년 51만 톤으로 늘기도 했으며 2020년까지 총 454만 톤의 폐전자제품이 회수되었다.

Table 4.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 of Each Major Company

Division	SK Hynix	Samsung Electronics
Commonality	Environmental Activities tailored to each Company's Industrial Characteristics (E)	
Difference	ESG Management at the Enterprise Level (G)	ESG Manage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upply Chain Ecosystem (S)
Implication	Establish Differentiation into Activit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pany	

Source: Authors.

3. 중소기업

위에서 본 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의 ESG 활동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대기업차원의 ESG 활동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ESG 활동에는 정보의 불완정성과 비용적 부담과 같은 어려움이 상존한다. Lee Si-Yeon(2021)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한정된 정보만을 의존하여 지표를 산출하기에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conomist(2021)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ESG 평가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FOMEK(2021)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ESG 경영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업무 및 비용 증가(47.5%)’를 선정하기도 했다. KOMSE(2021a)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환경(E)분야(47.7%)의 부담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ESG 경영 대응에 대해서는 “준비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25.7%에 불과했으며,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또한 34.6%로 나오는 등 아직 중소기업 자체의 ESG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가용 가능한 정보의 불완정성과 함께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ESG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몇몇 기업의 경우, 자신들만의 전략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오늘날 ESG 환경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기업들도 존재한다. KOSME(2021a)에서 언급된 우수기업인 ‘지구인컴퍼니’는 식물성 고기의 개발과 유통을 아우르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서 대체육 생산을 통해 탄소절감을 달성하고 있다. 더불어, “Let's Zero”캠페인에 일환으로 국내 농산물 사용을 통한 탄소발자국 줄이기, 100%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통해 기업 전반적으로 환경(E)과 관련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지구인컴퍼니’는 최근 2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포스코 협력사인 ‘세영기업’의 경우, 전사적 차원의 공유를 통해 ESG 경영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세영기업’은 회사 그룹웨어를 통해 작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여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안전보건문화를 정착하였다. 또한, 안전학교교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을 임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이삭토스트’는 가맹점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이삭토스트는 가맹점의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 11만원 가량의 가맹비만 받고 있으며 식자재 공급과정에서의 물류 마진도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매장에서 반경 300m에는 신규점포를 내지 않고 일부 식자재의 경우 다른 곳에서 구입을 허락하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삭토스트’는 이러한 ESG 경영의 결과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12% 상승하는 등 구성원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을 보여주었다.⁷⁾

7) Park Jong-Pil (2021 March 17), "Isaac Toast's "Nice Win-Win"...1,000 cases of three months in a.k.a. franchise",

4. 시사점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국내 ESG 경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비록 시작은 타 국가에 비해 늦었지만, 정부는 K-ESG 도입과 P4G 개최를 진행하며 내부의 혼란을 정리하고 국제사회의 모멘텀 유지로 국가 안팎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기존 지속가능경영의 연장선으로 국제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자신들의 특징을 가진 대응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위원회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G)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공급망 생태계 관리를 통한 사회(S)활동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기업 모두 기업 특성에 맞춘 환경(E)활동을 기반으로 각자 특징을 가진 사회, 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부담으로 인해 그 참여도가 다소 낮음을 볼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는 ESG를 통해 자신들의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은 ESG 활동에 있어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아직 정보의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활동에 있어 소극적인 것이 확인된다. 때문에 국내 ESG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가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Each Domestic Section

Section	Characteristics
Government	Introduction of K-ESG to Strengthen Korean Companies Response Capabilities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s
Major Company	Establish Differentiation into Activit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pany Information Instability to apply ESG Assessment
SME	Insufficient Response to ESG Management due to Cost Burden Some SME have Successful ESG Case

Source: Authors.

IV. SWOT 분석

1. SWOT 분석

지금까지, 국내외 정부와 기업들의 ESG 활동사례를 보았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SG는 일부 기업이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 흐름에 탑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SWOT 분석하여 우리나라 ESG 경영 주체들의 강점과 약점, ESG경영환경의 기회와 위기를 살펴보고, 이후 ESG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상황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1) S(Strength): 정부와 대기업의 분전

먼저 강점(S)에 있어서 국내 정부 차원의 통합된 ESG 평가제도를 볼 수 있다. K-ESG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표준화되지 못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야기된 기업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으며 국내 경영환경을

Hankyung, Available from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_top&where=nexearch&query=%ED%95%9C%EA%B2%BD+%EC%98%81%EC%96%B4%EB%A1%9C&oquery=%EC%9D%B4%EC%82%AD%ED%86%A0%EC%8A%A4%ED%8A%B8+ESG&tqi=hi%2B2Ewp0JXVssvEvCD8sssstL8-497803

고려한다는 점도 지켜볼 만한 요소이다. K-ESG는 2022년 까지 규모별·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K-ESG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부분에서 언급했던 정보의 편이와 한정된 정보 공시로 기업의 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우려를 지울 수 있다. KOSME(2021b)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 정책자금(53.3%), 진단·컨설팅(38.3%),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29.7%)순으로 답하였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 K-ESG 도입은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K-ESG를 기반으로 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ESG 개선방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축적하여 이후 K-ESG 최종본을 구성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강점으로 대기업 차원에서의 분전이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같은 활동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ESG 활동에 있어서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외에도 현대차나 LG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자신들의 ESG 경영을 꾸준히 하고 있다.

2) W(Weakness): 다소 늦은 출발점과 중소기업의 부진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외와 비교해서 ESG 대응책을 강구하는 시점이 늦었다는 점이 단점(W)으로 지적된다. 유럽은 이미 법제화 카드를 내세우고 있으며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ESG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팔로워 입장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ESG 활동의 부진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국내의 대기업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ESG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적 문제와 정보 불충분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를 참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E)분야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스러운 분야로 평가된다.

3) O(Opportunity): 새로운 공급망 구축 기회

그럼에도 외부적인 요소를 보았을 때, 해외 기업들의 공급망 재정비 가능성을 통한 우리나라의 기회를 볼 수 있다. EU는 공급망 실사제도를 추진 중이며,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자신들의 ESG 경영을 위해서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구성함에 있어서 ESG 지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케아의 중국사례 같이 기존 공급망 또한 ESG 환경에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구축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새로운 대안 혹은 핵심시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4) T(Threat): ESG 무역장벽화

반대로, 위협이 될 만한 요인으로 ESG의 무역장벽화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은 최근 ESG와 관련한 법률인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분류체계 규정(Taxonomy)', '공급망 실사 제도 (Due Diligence)' 등에 대한 입법화를 준비하면서 ESG를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만들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입법화가 완료된다면 기존의 무역장벽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TBT와 SPS와 같이 하나의 무역장벽으로서 ESG가 그 역할을 하며 유럽의 공급망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또한 존재 한다.

Table 6. SWOT Analysi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ESG Cases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Activities at the Level of Government and Large Corporations	Late Starting Point Limitations on ESG Ecosystem Incorporation of SMEs	Reshaping GVC Opportunities	ESG Trade Barriers Possibility

Source: Authors.

2. SWOT 분석기반의 대응방안

1) (S-O) 정부와 대기업의 협력적 중소기업 ESG 지원: 정부의 K-ESG 도입과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연계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유럽과 비교하여 다소 늦게 ESG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했다. 그럼에도 국내 대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의 연장선으로 자신들만의 체계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ESG 경영 활성화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기업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한데, 강점(S) 부분에서 언급했던 정부 차원의 K-ESG 도입이 경영 활성화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K-ESG가 도입 된다면 그동안 난립되었던 평가 지표를 통합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후 추가적인 업종·규모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K-ESG 평가지표를 사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가지는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사례인 공급망 관리사례와 같이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사 관리는 중소기업 ESG 활동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m Hyo-Jin(2021)도 대기업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ESG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ESG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보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들의 직·간접적인관리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정보의 불균형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ESG 경영을 하는 것보다 대기업을 거친 간접적인 ESG 활동은 ESG 무역장벽화와 같은 이슈에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2) (W-T) 자체적인 중소기업의 ESG 활동추진: 중소기업 스스로의 방향성 제시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기업이 관리해주는 ESG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판단하는데, 결국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위험 부분에서의 사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된다면 탄력적인 대응이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나 기업이 도와주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ESG 경영이 요구된다. 아직 ESG 개념정립이 제대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우수사례를 통한 자체적인 활동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먼저, 환경(E)차원의 방향으로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유통과정 친환경화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협업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탄소절감과 같은 이슈 해소를 통한 환경관련 성과 제고를 야기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구인컴퍼니’는 기술과 전반적인 유통과정에서 탄소절감과 같은 친환경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과 유통과정의 친환경화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인력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Kim Dong-Hong(2021)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탄소 소재 기업인 ‘수테크’를 지원해 ‘탄소 틈새 투수 블록’을 개발했다. 또한, 수테크는 전북대학교를 통해 제품개발과 디자인과 지역재생사업과 연계의 지원을 받는 등 대학과의 협업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의 인력이 부족하고 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S)차원 방향으로 전사적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 프로그램 개설이다. <Table 1>의 사회(S) 주요 이슈 중 인적자본에 포함된 근무환경 건강 및 안전의 개선을 통한 근로자와의 관계 개선 중점의

초기 ESG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세영기업’은 전사적인 안전망 관리를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는 근무환경의 개선을 일부 인원들만이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 차원의 안전진단을 통해 개선된 근무환경 변화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전사적 차원의 소통이 원활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근무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전사적소통망 구성을 통해 수시로 근무환경에 대한 진단을 한다면 우수한 사회적(S)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차원 방향은 자율성 보장을 통한 지배구조이다. <Table 1>에서 제시된 기업형태를 자율성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삭토스트’는 가맹점 점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만을 부여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본사입장에서는 불리할 것만 같은 수익구조에서도 꾸준히 매출증가를 통해 문제를 종식시키고 있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본사차원에서도 수익유지를 위해 자신들도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는 기업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지배구조(G)로서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Table 7. Direction of SMEs ESG Activities

Section	Direction
Environment	R&D and Distribution Eco-friendly through Collaboration with Universities
Social	Program to improve Working Place at The Enterprise
Governance	Governance that Guarantees Autonomy

Source: Authors.

V. 결론

지금까지 국내의 ESG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고, SWOT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유럽은 이전부터 환경문제 등에 관심이 많아 ESG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며, 연합차원에서 적극적인 ESG 관련 정책 및 법 제정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ESG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변화와 함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ESG 중요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중국최대정치행사에서 ESG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세계는 자신들만의 ESG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ESG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우리나라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ESG 환경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들은 ESG가 떠오르기 이전부터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CSR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ESG 성과평가방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K-ESG의 도입을 통해 지표 표준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과 정부는 ESG 대응에 있어서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ESG를 논의한 주체들이 대부분 정부와 대기업이었기에 중소기업의 ESG 리스크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한정적인 정보의 의존과 자금적 여유가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K-ESG 도입에 따른 우선권부여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할 수 있지만, 해외 ESG의 무역장벽 조치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ESG 경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중소기업 ESG 우수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R&D개발과 유통공급망의 친환경화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전해나가는 활동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전사적 차원의 소통으로 근무환경개선프로그램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주어 신뢰감 형성을 통한 지배구조 정립을 제시했다. 이후, ESG 개념정립과 함께 활발한 경영 활성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만의 우수하면서도 자생적인 경영방법이 도출될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국내 중소기업 ESG 활동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면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설정된 가치사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국내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Economist (2019 December 7), "Climate Change has made ESG a force in investing", *Economist*, Available from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19/12/07/climate-change-has-made-esg-a-force-in-investing> (accessed September 2, 2021)
-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FOMEK) (2021), 「78.2% of SMEs, Required ESG Management」 (Press Release June 14), Seoul,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fomek.or.kr/main/index.php>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1), 「We will Promote Measures to Improve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to Reduce Corporate Burden and Strengthen Investor Protection」, (Press Release January 14) Seoul,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fsc.go.kr/no010101/75176>
- Han Hee-Ra (2021 February 3), "Now Eco-friendliness makes Super Rich... Chinese > American", *Herald Economy*, Available fr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3000330&ACE_SEARCH=1 (accessed September 2, 2021)
- Im Hyo-Jin (2021), "Analysis on ESG Issues of SMEs Using Text Mining", *Asia Culture Academy of Incorporated Association*, 12(4), 469-482
-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19),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Lower for Longer*, 82, Available from <https://www.imf.org/en/Publications/GFSR/Issues/2019/10/01/global-financial-stability-report-october-2019>
- Jung, Moo-Kwon and Won Kang (2020), "Effect of ESG Activities and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49(5), 681-707
- Kim Dong-Hong (2021 October 21), "Jeonbuk National University'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hievement Successfully Developed 'Carbon-Material Permeable Block'", *Bridgenews*, Available from,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1021010005418> (accessed September 29, 2021)
- Kim Woo-Kung (2021 April 28), "Europe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 If Korean Companies have ESG Competitiveness, They have and Advantage over China", *IMPACT ON*, Available from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79> (accessed September 2, 2021)
- Kim, Bum-Seok and Jae-Hyung Min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oad-lag Relationship between Firms's ESG Efforts and Their Financial Performance", *Korea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27(4), 513-538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21), 「EU, ESG Legislation Introduced One After... Use it as an Opportunity to enter the Market」 (Press Release April 28), Seoul,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kita.net/asocGuidance/nesDta/nesDtaDetail.do?pageIndex=1&sNo=9805&query=%EC%9C%A0%EB%9F%BD%20ESG%20%EA%B7%9C%EC%A0%9C%20>
-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2021a), 「Kosme, clos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ESG management spread」 (Press Release November 24), Jinju,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경영안내서-이해편.kr>
-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2021b), 「More than Half of SMEs have a Difficult Environment for

- ESG Management*, (Press Release July 14), Jinju,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www.kosmes.or.kr/sbc/SH/NTS/SHNTS002F0.do?seqNo=4633>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2021a), "ESG Introduction Status in the US as an Example", Available from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515>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2021b), "Germany ESG Latest Trends", Available from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8227> (accessed September 2, 2021)
- Korean Institute of Finance (2020), "*Emphasis on COVID-19 and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Korea Institute of Finance, 29(13), 25-27
- Lee Si-Yeon (2021), "Current Status of ESG Investment at Internal and External and Implications for Creating a Investment Ecosystem",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21(1), 39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1), "*Held the '44th Emergency Economy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Meeting'*"(Press Release August 26), Sejong,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5636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d),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P4G)*", Available from https://www.mofa.go.kr/www/wpge/m_22235/contents.do (accessed September 2, 2021)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1a), "*Announced 'K-ESG line' to support ESG management of Korean companies*"(Press Release December 1), Sejong,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4932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1b), "*Ministry on Industry Starts to Establish K-ESG Index in Earnest*"(Press Release April 21), Sejong, Korea: Author. Available from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4036
- Moon Ji-Young, Young-Sun Kim and Go-Woon Jo and Yoon-Mi Oh(2021), "China's Economic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 through the Lianghui in 2021", *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1(4), 3-28
- Oh Deok-Gyo (2012), "Analysis of ESG Statu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65, 70-80
- Park Jong-Pil (2021 March 17), "Isaac Toast's "Nice Win-Win"...1,000 cases in three months about Franchisees", *Korea Economic Daily*, Available fr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1747081>(accessed September 2, 2021)
- Samsung Electronics (2021), A JOURNEY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Available from <https://news.samsung.com/kr/%EC%A7%80%EC%86%8D%EA%B0%80%EB%8A%A5%EA%B2%BD%EC%98%81%EB%B3%B4%EA%B3%A0%EC%84%9C> (accessed September 2, 2021)
- SK Hynix (2021), Sustainability Report 2021, Available from <https://www.skhynix.com/sustainability/UI-FR-SA1601> (accessed September 2, 2021)